



2018년 2월 20일 | Equity Research

# 디스플레이

## LG전자 차기 스마트폰의 M+ LCD 패널 탑재 의미

### LG전자 차기 플래그십 모델 M+ LCD 패널 탑재

LG전자의 차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가 기존(3월)과 달리 6월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G시리즈의 연장선이지만 패널 크기는 V시리즈(6인치대) 정도의 크기로 출시될 전망이다. 눈 여겨 볼 것은 V30가 OLED 패널을 탑재했음에도 이번 차기 모델에는 LCD 패널이 탑재된다는 것이다. 그 동안 UHD TV 패널에 적용됐던 M+ 기술이 적용된다는 것 역시 중요하다. M+ LCD 기술은 기존의 세가지(RGB) 서브 픽셀에 White 서브 픽셀을 추가한 기술이다. 픽셀 수가 늘어나면서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Back light 의 패널 투과율 감소를 방어하기 위해 색을 표현하지 않고 그대로 빛을 투과하는 White 서브 픽셀을 추가한다는 개념이다. 휘도(밝기) 향상을 위해 고가의 Back light 혹은 추가 부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원가 절감 및 소비 전력 측면에서 유리하다.

### UHD TV 시장에서 M+ LCD 기술 도입 이후 점유율 급상승

2014년 CES에서 LG디스플레이가 처음 선보인 M+ 기술은 해상도 향상과 소비전력 감소를 충족 시켜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세트 업체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실제로 14년 1분기 UHD TV 패널 시장 점유율 14%(3위)였던 LG디스플레이는 M+ LCD 패널 판매 이후 3개 분기 만에 시장 점유율 28%(1위)로 점유율이 급상승했다. 특히 동일 밝기 표현 시 소비전력이 약 30% 감소한다는 점이 세트 업체의 핵심 needs를 충족시켜주었는데 이는 모바일 시장에서 더 큰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 용량 증가가 물리적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가장 큰 전력 소요가 발생하는 패널의 소비전력의 30% 감소는 세트 업체에게 매우 큰 메리트다.

### LG디스플레이 모바일 LCD 부문 안정적 실적 유지 전망

M+ LCD의 모바일 진출은 모바일 패널의 주력이 POLED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LG가 프리미엄 모바일 LCD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데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한편, LG전자가 OLED 패널이 아닌 LCD 패널을 탑재하고 전력 효율에 유리한 기술을 적용했다는 것은 MC사업부의 전략이 공격적 마케팅보다 원가 절감에 맞춰져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Update

## Overweight

### Top picks 및 관심종목

종목명	투자 의견	TP(12M)	CP(2월 19일)
LG디스플레이(034220)	BUY	43,000원	30,400원

### Financial Data

투자지표	단위	2015	2016	2017	2018F	2019F
매출액	십억원	28,384	26,504	27,791	28,477	30,286
영업이익	십억원	1,626	1,311	2,462	1,432	2,194
세전이익	십억원	1,434	1,316	2,332	1,402	2,164
순이익	십억원	967	907	1,805	1,026	1,583
EPS	원	2,701	2,534	5,045	2,866	4,425
증감률	%	6.89	(6.18)	99.09	(43.19)	54.40
PER	배	10.18	10.60	6.16	10.85	7.03
PBR	배	0.72	0.87	0.73	0.69	0.64
EV/EBITDA	배	2.10	3.07	2.49	2.87	2.08
ROE	%	7.93	7.00	12.39	6.65	9.41
BPS	원	34,076	36,209	40,730	43,096	47,021
DPS	원	500	500	500	500	500

자료: 하나금융투자



Analyst 김현수  
02-3771-7503  
hyunsoo@hanafn.com

## M+ LCD 기술이란?

### 기술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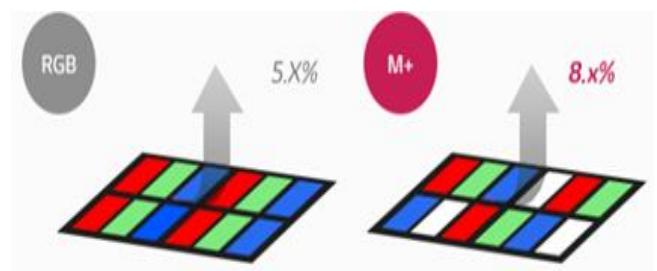
세트 업체 입장에서 고해상도 및 소비전력 감소 모두 충족 가능

- M+ : LCD 패널 밝기 및 소비 전력 개선 위한 LGD 의 프로젝트 명
- 빛의 삼원색인 RGB 로 구성된 서브픽셀에 화이트(White) 추가
- W 를 뒤집어 M 으로 표기하고 플러스를 붙여서 명명
- 2014 년 CES 에서 최초 공개
- 화이트를 추가한 부분에는 빛이 그대로 통과해 RGB 만 구성돼 있는 제품보다 적은 전력으로 똑같거나 그 이상의 휘도(밝기) 구현 가능
- 패널의 고해상도 구현 위해서 빛의 패널 투과율 극대화시키는 것이 필수적
- M+ 적용시 IT/모바일 제품의 빛 투과율 2.6 배, TV 는 2.5 배 향상
- 해상도와 사이즈 동일한 LCD 패널 보다 휘도 50% 개선 및 소비 전력 35% 절감
- 초고해상도와 소비전력 절감을 위한 솔루션 기술
- 일반적으로 해상도가 증가하면 픽셀이 조밀하게 배치되면서 빛의 패널 투과율이 감소, 해상도와 패널 투과율은 반비례.
- M+ 적용시 두 가지 모두 충족 가능
- 서브픽셀개수는  $2,880 \times 4 \text{ 개} \times 2,160 = \text{약 } 2,500 \text{ 만개}$ 로 일반 UHD 패널( $3,840 \times 3 \text{ 개} \times 2,160$ )과 동일
- 기존 Back light 그대로 이용하면서 최종적으로 휘도가 높은 제품을 만들거나 보급형 Back light 를 구매해서 원가 절감 가능

그림 1. M+ IPS 패널 개념도



그림 2. M+ 패널의 높은 빛 투과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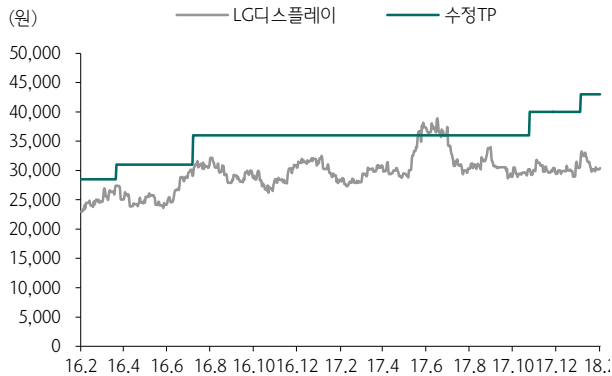
## 최근 이슈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LCD 모델로 LG디스플레이가 M+ 모델 제안했으나 거절 ... 이번 공급 모델은 증가 보급형 모델

- 2016 년말 샤프가 삼성전자에 LCD 패널 공급 중단
- 삼성전자가 LG 디스플레이에 LCD 패널 공급 요청
- LG 디스플레이는 M+ 기술 기반의 LCD 패널 공급 제안
- 삼성전자는 M+ 기술 기반의 RGBW 패널을 4K UHD 급 패널로 인정하지 않음
- 삼성전자는 RGBW 에서 W 가 진정한 서브픽셀이 아니라고 해석
- 16 년 5 월 SID 산하 국제디스플레이측정위원회(ICDM) 총회에서 M+ 패널 사용한 RGBW 방식도 4K 로 인정
- 전미가전협회 : 4K 는 '3,840 x 2,160 픽셀수와 함께 각 픽셀이 R,G,B 서브픽셀을 표현해야 한다'고 정의
- 결국 최근 공급 확정된 LG 디스플레이의 패널은 증가 보급형 모델
- 향후 M+ 및 IPS 등 프리미엄 모델 탑재 여부는 미정

##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 LG디스플레이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18.1.24	BUY	43,000		
17.11.14	BUY	40,000	-24.58%	-20.50%
17.11.13	Analyst Change	40,000		-
17.7.28	1년 경과		-15.01%	-5.56%
16.7.27	BUY	36,000	-14.85%	8.06%
16.4.10	BUY	31,000	-16.62%	-2.90%
16.2.22	BUY	28,500	-11.70%	-3.86%
16.1.20	BUY	27,000	-19.06%	-14.81%

##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 의견 비율공시

- 투자 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매도)\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1.3%	8.1%	0.6%	100.0%

\* 기준일: 2018년 2월 18일

##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현수)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18년 2월 20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현수)는 2014년 0월 0일 현재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